



사랑의 나침반을 고정해요!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시편 25, 4)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가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망설일 때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항상 옳은 선택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쓰셨어요.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프랑스의 로베르토가 이야기해 주어요.

하루는 축구 경기를 하였는데, 우리 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지고 있던 팀의 한 아이가 나를 팔꿈치로 밀어서 나는 넘어졌고 가슴에 상처도 입었어요.



나는 반칙이라며 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나를 넘어트린 아이에게 똑같이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 안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